사라진 '유급휴가' 천도합니다

일본서 이색천도재… 노동자 고통 위로하려

박영빈 객원기자

직장인들이 끝내 쓰지 못하고 사라진 유급휴가를 위한 천도재. 바쁜 현대인의 고달픔을 위로하는 이색 천도재가 일본 도쿄에서 봉행돼 화제다. 12월 13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와 'IT 미디어 비즈니스'는 이 독특한 소식을 특집 보도했다.

유급휴가 천도재는 일본의 '근로자 감사의 날'인 11월 23일과 그 전일인 22일 양일에 걸쳐 봉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중지, 지난 12월 10일 오사카 시내에서 다시 봉행됐다. 천도재를 주최한 웹 콘텐츠 제작회사 '닌겐(人間)'은 "유급휴가를 영혼에 비유해 소리 없이 스러진 유급휴가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봉행 취지를 밝혔다.

주최 측은 천도재 봉행에 앞서 웹사이트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을 공모했다. 모집된 수많은 후기들 중 300여건의 후기를 엄선, 사연을 종이에 써 등불로 밝혔다. 또 등을 밝히는 영가의 이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써졌다.

후기 중엔 "가족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와 같은 사연은 물론 "유급휴가의 9할을 쓰지 못한 채 정년퇴임했다"는 사연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주최 측은 "받지 못한 유급휴가는 어딘가로 떠나거나 집에서 편안히 쉬는 등의 '모습'이 존재한다.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사라진 유급휴가의 존귀함을 등불이라는 모습으로 가시화했다"며 300여개의 등불을 밝힌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우천으로 중지됐던 천도재를 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봉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사연을 확실히 위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모든 천도재를 정성껏 지내겠다고 밝혔다.

웹 콘텐츠 제작회사 '닌겐'
정토종 스님 집전으로 봉행
유급휴가 받지 못한 사연에
정당한 권리 알리고자 기획



사라진 유급휴가들을 천도하는 천도재의 모습. 사진출처=IT 미디어 비즈니스

천도재는 정토종 사이넨지(西念寺)의 사야마 세키로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300여 개의 등불이 줄지어 켜진 가운데 사야마 스님의 독경이 울려 퍼지고, 각 영가들의 이름인 사연의 제목들이 스크린에 흘러갔다.

사야마 스님은 천도재를 지내면서 "나 역시 출가 전 회사원 시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채 월 200시간 이상 잔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천도재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를 '수라계'라고 한다. 이러한 노동과 삶속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수라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며 천도재를 통해 수라의 삶을 사는 이들이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 측은 '유급휴가를 받아낸 사연'도 함께 모아 이를 기반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운세 제비뽑기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유급휴가를 어떻게든 받아내고 말겠다" "정당한 권리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 웃기면서도 서글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천도재를 기획한 닌겐 담당자는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아무래도 직설적으로 전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희화화하는 게 더 쉽게 전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봄부터 사측이 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찰로 재탄생한 네덜란드 성당

태국 담마까야재단, 성당 매입 후 반응 긍정적

폐쇄된 성당이 사찰로 탈바꿈해 화제다. 12월 12일, 인터넷 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네덜란드의 한 성당이 불교 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아페르덴 마을에 있는 가톨릭 성당은 2017년 태국스님들에 의해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했다. 네덜란드에서 가톨릭이 쇠퇴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성당들이 폐쇄 및 매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원으로 전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현재 사원은 지역의 불교와 타 종교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며 새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 했다.

성당의 폐쇄과정을 감독한 지역 교구위원회 수석부회장 톤 펄로(Ton Perlo) 신부는 "가톨릭 교구는 일반적으로 타 종교가 성당을 매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성당이 영적인 건물로 남기를 바란 교구의 고심 끝에 불교 측의 매입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성당이 사찰로 변한 계기를 밝혔다. 성당을 매입한 태국의 불교단체는 1916년 태국에서 시작된 '담마까야(Dammakaya) 재단'으로, 네덜란드의 담마까야재단은 2014년 불교 교육의 실천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사찰에 상주하며 불교를 가르치는 샌더 오데남센(Sander Oudenampsen) 스님은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법당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이 명상에 이상적인 고요함을 갖추고 있어 바로 매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톨릭과 불교는 기도와 명상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 성당에 미사를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명상을 위해 방문하곤 한다"고 웃어 보였다.


네덜란드 성당을 매입해 운영 중인 담마까야 사원. 사진출처=담마까야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이 성당에서 사목했던 제라드 반 후프(Gerard van Hoofd) 신부는 "불교신자들이 성당에 터를 잡게 돼 기쁘다. 불교도들은 이 마을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 주민도 "종종 성당에서 드렸던 미사가 그립긴 하지만, 친절한 불교도들은 이미 마을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면서 "성당이 '마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법이민자 색출에 불교도 '불똥'

인도정부 '인도시민 국가등록'
망명 티베트인 등 곤란 겪어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애꿎은 불교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12월 14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인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색출제도'로 불교성지 보드가야에 거주하는 불교도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정부는 지난달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게 위해 전국적으로 '인도시민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of India; NRC)'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NRC는 적법한 방법으로 인도의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가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제도다.인도 동북부 아삼주(州)에서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해당 제도는 소수 집단을 겨냥한 '인종청소'라고 비판받았다. 아삼 주에서 등록을 거부당한 이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민권을 획득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린다는 게 그 이유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드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불공을 올리는 각국의 스님들. 사진출처=아웃룩인디아

한편 제도의 시행으로 애꿎은 불교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인도 불교의 고대유적들이 산재한 비하르주에는 주 인구의 0.02%인 약 2만5000여 명의 불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보드가야에는 세계 40여국의 사찰이 있으며 각각 수백 명의 출가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3~4대 이상을 거주한 수천 명의 불교도들도 다수 있다.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출신의 한 스님은 현 제도에서 조상의 혈통에 관한 문서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을 꼬집어 "망명 티베트인들이 인도에 거주했던 조상과 혈통에 관한 문서를 요청받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스님은 "티베트 난민은 이미 난민의 삶을 살고 있으며, 망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는데 또 다시 NRC 등록제도로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하르주 관광개발공사의 무케시 쿠마르(Mukesh Kumar)는 "지난해 보드가야를 방문한 1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특히 불교신자의 비율이 높고, 그 중 대다수가 관광 비자를 갱신해 가며 10년 이상 보드가야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보드가야의 한 티베트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텐진 스님은 망명 티베트인들과 많은 불교도들의 지위가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미래를 낙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중세 석불이 전하는 신앙 역사

日 고야산, 수십만 기의 석불 · 석탑 조명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일본불교의 성지 고야산(高野山)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보들이 많다. 12월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고야산에 산재한 수십만 기의 석불과 석탑에 대해 보도했다.

고야산은 816년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진언밀교의 근본도량으로 개산했다. 고야산은 현재도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으로 본사인 콘고부지(金剛峰寺)와 117개소의 산내 사찰이 산재한 성지다. 고야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역은 코보대사의 육신을 모신 오쿠노인(奥之院)으로, 주변에는 일본 역사에 중요한 인물의 무덤이나 중세에 조성된 석불과 석탑이 곳곳에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일석오륜탑(一石五輪塔)이라 불리는 석탑들로, 돌 하나로 오륜탑을 조각한 것이다. 오륜탑은 밀교에서 5대(지 · 수 · 화 · 풍 · 공)를 상징하는 5가지 도형을 모아 만든 탑으로 대일여래(비로자나불)을 모시는 탑이다.

산케이 신문은 "중세에 고야산에 대한 신성화와 신앙이 강조되면서 민간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며 "중세에 망자, 혹은 자신의 묘표로써 오륜탑을 고야산에 세우는 것이 유행했다"고 수십만 기의 석불과 석탑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와카야마현 지역민속고고학 연구소는 이들 석불과 석탑에 대해 "14세기 이후로 일석오륜탑이 유행했다. 보통 기단부를 땅에 묻어 세웠으며, 기년이나 인명 등이 새겨져 있는 경우 귀중한 사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또 "석불의 경우 밀교계 불상, 혹은 사후세계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옅게 새기거나 선으로만 새긴 경우도 있어 시대별로 다양한 작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들이 민간에서의 불교신행에 중요한 상징이었음을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